

효성, 카타르 전력망 시장 진출

1300억원 수주계약 체결 ... 에너지·플랜트 글로벌 선두가 목표

효성이 카타르 전력망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효성은 카타르 전력청과 1300억원의 전력망 사업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4월14일 발표했다.

2009년 말 카타르 전력망 확충 9단계 프로젝트 중 132kV 변전소 3기, 66kV 변전소 2기 등 모두 5기의 변전소를 일괄입찰방식(EPC)으로 수주했다.

EPC는 설계부터 자재구매, 건설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효성은 2012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카타르 도하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3일 열린 계약식에 효성 대표로 참석한 조현문 중공업PG장은 “에너지 및 플랜트분야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딩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4>